

성공 광주체전, 이렇게 준비하자



⑦ 심판 판정 공정하게

지난 2005년 울산에서 열린 86회 전국체전 보디빌딩 경기장, 라이트헤비급에 출전한 광주시 대표 김명훈(36·광주시체육회)이 경연을 마치고 순위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다.

보디빌딩은 출전선수들의 근육미를 표현하는 포즈를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기. 아시아 찹피언, 2006 도하야시안게임 대표 등 라이트헤비급에서는 국내 1인자로 평가받는 김명훈의 금메달은 당연시되는 분위기였고, 관중들의 호응도 금은 확실시됐다.

‘페어 게임’ 만들어야 ‘페어 플레이’ 나온다

하지만 순위 발표가 30분 늦어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울산시보디빌딩 협회장이 오고나서 순위 발표가 있었다. 울산시 선수가 1위, 김명훈은 은메달, 아쉬움이 남았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다.

체전이 끝나고 울산시 선수가 악물복용으로 금메달이 박탈됐지만 체전 규칙상 김명훈은 은메달에 머물러 두고두고 아쉬움을 꽂침에 애했다.

전국체전 중 치러지는 41개 종목에서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소수점 이하까지 점수를判定하는 체조와 순간적 타격으로 점수를 얻는 태권도·검도 등은 항상 판정시비에 노출되어 있다.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정에 대해 100% 신뢰성을 갖기는 어렵고, 각 시·도의 첨예한 경쟁 때문에 이성보다 감정에 휩싸여 판정시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 같은 판정시비를 줄이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지난 3~4일 광주시 남구 프라도호텔에서 제88회 광주전국체육대회 참가 경기 단체 입원과 심판들에 대해 심판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발생하는 판정시비와 공정한 판정을 위해 ‘심판이기 때문에 판정에 잡아야 할 요건’ ‘체육계 자정 운동 주진 배경과 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심판들에 대한 소양교육에 전력을 기울였다. 또 각 경기단체별로 체전 개최를 앞두고 심판강습회나 교육을 통해 공



정하고 엄격한 판정을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심판들은 “심판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도 중요하지만 16개 시·도의 지도자와 선수들도 심판의 판정에 대해 승복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운다. 전국체육대회 심판배정은 각 종목 심판위원장이 16개 시·도 출신의 심판들을 고루 배정해 판정에 공정성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1개 경기단체 중 모범적인 심판운영을 하고 있는 배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16개 시·도 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심판을 1명씩 추천받고, 나머지 10명은 심판분과 위원회에서 정해 총 26명이 심판을 맡는 등 오심과 판정시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순길(52) 배구 심판위원장은 “전국체전에서 시·도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판정에 잡아야 할 수 있다”며 “해당 시·도 경기에는 항상 제3 지역 심판이 배정되도록 해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고, 심판들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불법 외국인 강사 적발 ‘후유증’

‘방과후학교’ 외국어 강좌 포기 확산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는 원어민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한 광주지역 학교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해당 학교는 물론 적격강사를 쓰고 있는 학교에서도 원어민 외국어강좌를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등 후유증이 일고 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7개 초·중학교 교장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후 해당 학교의 원어민 외국어강좌가 폐쇄되거나 잠정 중단되고 있다.

한 중학교의 경우 원어민을 채용, 영어·일어· 중국어 강좌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자 영어· 중국어 강좌를 폐쇄하고 일어 강좌는 귀화 일본인에게 맡겨 운영하기로 했다.

나마지 6개 초·중학교는 교장에 대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 등이 확정된 이후 새 강사를 구해 원어민 외국어 강좌를 재개하기로 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원어민 강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실정과 관리상 어려움에 비춰 원어민 외국어 강좌를 아예 포기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원어민 외국어강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강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능력이 없는 ‘저질 강사’가 아니라, 외국인 강사 비자인 E2 비자를 갖고 있지만 근무처 추가변경이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법을

어긴 ‘체류자격상 문제가 있는 강사’였다고 해명하며 학부모와 학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 애쓰고 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원어민 강사의 체류자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원어민 강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남 지역 교육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외국어 강좌에 드는 비용은 일선 학교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도 강사를 구하기도 힘들다”며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정·재정적인 관리와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광주 인권학교’ 입학식

5·18 기념재단은 3일 아시아 14개 국가 20여 명의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 아시아인권학교’ 입학식을 갖고 오는 20일까지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인권학교는 5·18 사적지 순례, 영화 ‘화려한 휴가’ 관람, 홈스테이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진행되며, 한국과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로 강의·토론을 병행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

탄산음료 연내 학교에서 완전 추방

내년부터 학교에서 급식 제공시 탄수화물·단백질·지방·비타민 등 각 영양소의 정확한 양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영양표시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글자로 한 ‘학생건강증진대책’ 11대 과제를 수립, 2011년까지 5년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학생들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해 2학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영양표시제가 시작된다. 한 주 단위로 식단 제공시 탄수화물·단백질·지방·비타민·칼슘 등

각 영양소의 정확한 양이 제공되므로 학생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의 영양 정도를 알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매점과 자판기를 통한 탄산음료·라면·튀김류 등 비만유발 식품 추방운동을 강화하고 이번 달 실태조사를 통해 12월까지 학교 내 탄산음료를 완전히 주방할 계획이다.

‘비만예방프로그램’을 모든 학교가 운영하도록 의무화해 보건·체육·영양교사가 학생 비만정보를 공유하면서 학생활동 증진 및 영양섭취 지도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장애인 등 증언때 보호자 동석 허용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은 3일 ‘심신 미약자나 고령자, 어린이 등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보호자 등과 함께 앉는 것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내규에 따르면 동석 증언은 민사·가사·행정사건 등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며, 재판장은 사건기록 등을 통해 소환할 증인이 ‘심신 미약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 안내문과 동석 허가신청서를 증인 소환장과 함께 발송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풍 조심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며 모래까지 많은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	21~25°C
목포	흐리고 비	22~24°C
여수	흐리고 비	20~24°C
완도	흐리고 비	21~25°C
구례	흐리고 비	21~26°C
해남	흐리고 비	21~25°C
장흥	흐리고 비	21~25°C
고성	흐리고 비	20~25°C
순천	흐리고 비	20~26°C
광진	흐리고 비	19~24°C
전주	흐리고 비	20~26°C
남원	흐리고 비	20~26°C
화성	흐리고 비	18~22°C

서해남부

안나다=북동·남동풍 파고 0.5~2.0m

만나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안나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만나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6:38 셀물 < 11:49

19:42

여수 밀물 < 01:06 셀물 < 07:17

14:18 20:36

▲해뜸 06:06 ▲해침 18:56 ▲달뜸 23:18 ▲달침 13:47

기상내전화 : 국번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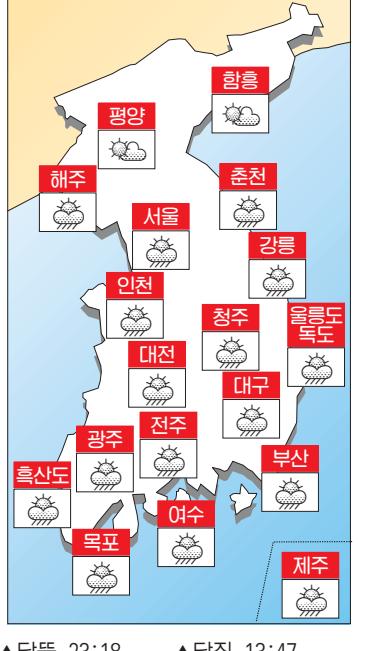
날씨

최저/최고 21/24 22/27 22/29 21/28 20/28 20/29

9월 4일

(음 7월 23일)

◇전국날씨



“중국 어선 불법조업 강력 단속”

이원일 서해해경청장 취임



광주 출신인 이 청장은 지난 80년 간부

후보생으로 임용돼 제주·인천 해경서장, 동해지방 본부장, 본청 국제 협력관 등을 지냈다.

한편 강성형 전 청장은 치안감으로 승진, 해양경찰학교장으로 자리옮겼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추석 전후 강·절도 사건 예방 주력

전남경찰청 대책회의

종단속하는데 치안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남청은 특히 농·축산업 종사 인구가 30%를 차지하고 1천965개소의 도서가 산재해 있는 전남의 특수한 치안환경을 고려, 농·축산물 절도 예방과 도서지역 인원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외 대선을 앞두고 금품살포 등 예상되는 각종 선거법 위반사범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증개사과정 (개강:9월3일)

- 과정 : 주간반(10:00~13:50)
어간반(19:00~22:30)
- 대상 : 고용보험 기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내용 : 최종 문제풀이(진진도별 진행)
- 교수진 : 한윤호·박한수 교수팀(저자직강)
- 기타 :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택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 일)모집중 (개강 9월 2일)

- 과정 : 정보화기초1과정(화, 목 19:00~21:00)
정보화기초2과정(월, 수, 금 19:00~21:00)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 수시)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 대상 : 고용보험 기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기타 : 훈련수료 후 개인별 현급(노동부)

노동부자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일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7·9 클 공무원

=전직종 완전대비=

전문 문제풀이반 (9월 3·5주원성)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학습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무등고시회원 www.mdgosi.co.kr 222-4560

9월대개강 1차강 9월 1일 2차강 9월 3일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